

## 메가 트렌드적 전환기, 원자력산업에 새로운 성공의 틀 필요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원자력산업〉 독자 여러분 그리고 원자력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대망(大望)의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과 에너지전환 국면 속에서도 한국전력기술은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안정적인 성장의 뿌리를 안착시키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ITER 핵융합사업, 원전 O&M 사업 등 해외시장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며, 4차산업을 대비한 글로벌 수준의 역량 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메가 트렌드(Mega trend)적인 전환점에서 있는 우리 원자력산업계는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위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차원(Bounce Back)을 넘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한 단계 변화된 성공

의 틀을 창조(Bounce Forward)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우선 2021년 이집트 엘다바(Eldaba) 원전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루마니아 원전 등 해외 원전사업 수주에 Team Korea의 일원으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운전·구매·사업주 기술지원(Owner's Engineering)과 원전 디지털 사업 및 신재생 사업 등 업역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ITER 핵융합사업 역무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중소형·하이브리드형 원전 등 한국전력기술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공의 틀을 창조하는데 한국전력기술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원자력산업계 모두가 하나 되어 하얀 소의 기운으로 새로운 도약을 열어가는 2021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KKEC**